

## “간호대 다닐 때부터 제 꿈은 서울아산병원 근무였어요”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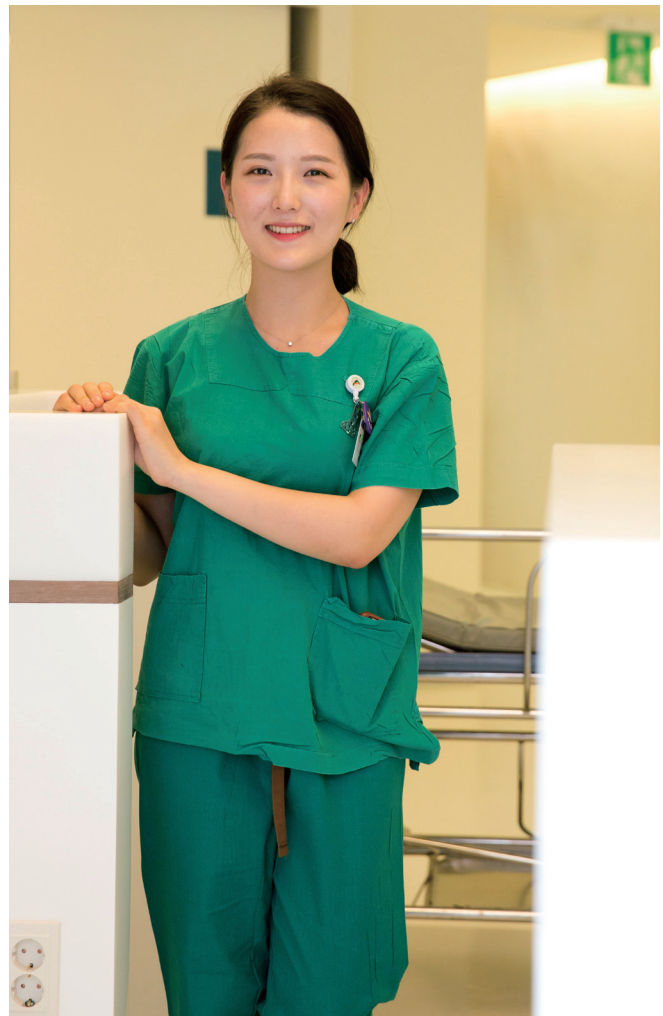
김가현(25) 간호사를 만난 곳은 서울아산병원 동관 지하1층의 직원 라운지였다.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사무실로 돌아가면 이내 다른 직원들이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간이었다. 김 간호사와 인터뷰를 하는 중에 사진작가의 카메라 플래시가 수시로 번쩍었고, 그때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인가 하며 김 간호사를 쳐다봤다.

많은 사람들이 주시해도 김 간호사는 호트러짐이 없었다.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차분한 말투와 태도를 유지했다. 이제 사회생활 3년째, 그동안 겪은 일이 많지 않을 경력과 나이인데도 저렇게 침착해서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속으론 굉장히 떨고 있는 걸요(웃음). 수술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긴장하세요. 그런 환자들을 보면 제가 다가 가서 가족이나 직장 얘기 등을 나누죠. 서로 미소 짓기도 하며 조용히 대화하다 보면 환자들께서 두려움이 가셨다며 고마워하세요. 그런 버릇이 몸에 배서인지 모르겠네요.”

천상 간호사인 그녀는 중학교에 다닐 때는 의외로 호텔 근무를 꿈꿨다. 1992년 경북 경산에서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 특별한 장래희망이 없었다. “꿈이 없으면 일단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다. 고향에서 장산중학교를 다닐 때 드디어 호텔리어라는 목표가 생겼고, 까다로운 전형과정을 거쳐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국관광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속 깊은 그녀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관광고에 다니



1년여 전부터 정형외과 파트의 수술장에서 근무 중인 김가현 간호사는 12월 17일 웨딩마치를 울리고 신부가 됐다.



한양대 간호학과 3학년이던 2012년 7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아산장학생 농촌봉사활동에 참가해 인삼밭에서 농사를 돕던 김가현(오른쪽) 학생이 이제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문간호사로 도약하고 있다.

면서 진로 수정을 했다. 관광업은 특성상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좀 더 안정적인 분야를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한 새로운 목표가 의료계, 구체적으로 간호사였다.

### “장학생으로 받은 도움, 보답하고 싶다”

2010년 한양대 간호학과에 입학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꿈에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2학년에 진학해서는 우수한 성적 덕분에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돼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 신분을 유지했고, 아산재단으로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 부모의 짐을 한결 덜어 드렸다. 아산장학생들의 모임은 ‘정담회’로 불린다. 그녀는 정담회 35기인데, 3학년 때 정담회 부회장에 선정됐다.

“대학생활의 가장 좋은 추억을 정담회 활동을 하며 쌓았어요. 부회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경험도 해봤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3학년이던 2012년 7월 18일부터 1주일 동안 강원도 홍천군 동면 개운리에서 실시한 농촌봉사활동이에요. 전국에서 모인 정담회 친구들과 같이 밥 해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장난쳤던 일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35기 동기 중에서는 지금도 10명 정도와 연락하고 지내요.”

그녀는 3학년과 4학년 때 중요한 경험을 또 하나 했다. 서울아산병원으로 실습을 나온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다른 병원들과 달리 차트를 이미 전산화했더라고요. 상당히 앞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간호사가 간호업무에만 전념하는 분위기도 좋았어요. 그때부터 서울아산병원

입사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바람대로 서울아산병원에 들어온다면 아산장학생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므로 열심히 근무해서 보답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죠.”

입사지원서는 여러 군데가 아니라 딱 두 곳, 모교와 직접 연관된 한양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만 냈다. 치열한 준비와 노력 끝에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고, 2014년 9월 새내기 간호사가 됐다.

실습 때 수술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매력에 사로잡힌 그녀는 처음부터 수술간호팀을 지망해서 트레이닝 기간에는 주로 산부인과와 간이식팀, 이비인후과 파트의 수술장에서 간호 업무를 익혔다. 1년여 전부터는 서울아산병원 동관 3층 수술장에 자리한 정형외과 파트에서 근무 중이다.

“수술 기구가 다양하고 몸 전체를 다 봐야 해서 어렵지만 그만큼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면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했다.

“우리 병원은 ‘수술 잘하는 병원’으로 유명하지만 하나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 레지던트, 소독 간호사, 순환 간호사, 마취 간호사, 영상의학팀 직원, 기구를 닦고 소독하는 조무사 등 여러 사람이 합심해야 수술이 잘 끝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환자를 먼저 배려하고, 자신보다 다른 직원들을 앞세우는 김가현 간호사 같은 젊은 나이팅게일이 계속 충원되고 있어서 서울아산병원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 같았다. 🌟